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상승
- CNBC: 뉴욕연방중앙은행, '주택비용으로 인플레이 상승 전망'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주가 흔들려... 생산자 물가지수와 파월 의장 발언에

[주택]

- WSJ: 치솟는 주택 비용이 '임대 주택 건설' 부추긴다

[물류]

- Bloomberg: 미동부 항만, 서부 항만과 경쟁... 탈 중국 수출 추세 활용

[오일]

- WSJ: OPEC, 석유 수요 전망 고수하면서 '전체 생산량 감소' 발표

[미중 관계]

- WSJ: 바이든 중국에 광범위한 관세 부과... 트럼프와 무역정책 경쟁
- Bloomberg: 중국, 바이든 관세 정책에 '결연한 대응' 맹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맥도날드, 테슬라 등, 중국에서 돈 벌기 더욱 어려워진다
- Bloomberg: 주요 항공사들, 연방 교통부 고소 ... 수수료 공개 의무화에 반발
- WSJ: 월마트, 일자리 축소하고 재배치한다
- TechCrunch: OpenAI, GPT-4o '옴니' 모델 출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Producer Prices Rose More Than Expected in April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상승

- 4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에 비해 0.5% 상승했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화요일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 0.3%보다 높았다. 지난달 3월에는 당초 0.2% 상승이었는데 수정되어 0.1%로 하락했다.
-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2% 상승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 0.2%보다 높은 0.5% 상승했다.

WSJ 기사

CNBC: Inflation outlook rises, fueled by expected increases for housing costs, New York Fed survey shows

뉴욕연방 중앙은행, '주택비용으로 인플레이 상승 전망'

- 뉴욕연방 중앙은행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연준의 2% 물가 목표제 달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신뢰감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향후 1년과 향후 5년의 인플레이 전망치가 상승했다.
- 향후 1년 물가 기대치는 3월의 기대치보다 0.3% 늘어난 3.3%, 향후 5년은 3월 기대치보다 0.2% 늘어난 2.8%라고 응답했다.
- 이는 주택 비용 탓. 응답자들은 내년에 주택 평균 가격이 3.3%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는 2022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 Futures Waver After PPI With Powell in Focus: Markets Wrap

미 주가 흔들려... 생산자 물가지수와 파월 의장 발언에

- 인플레이 관련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트레이더들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주식이 요동치고 있다.
- 파월 의장은 암스테르담 행사에서 “올해 1분기에 인플레이 회복이 미흡했지만 물가는 매월 하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일 수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하루 전인 오늘 화요일 생산자 인플레이 지수는 예상보다 높았다. 물론 생산자 물가지수의 자세한 지표는 연준이 선호하는 주요한 카테고리가 다소 개선된 점을 보임에 따라 얼마간 안도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보면 물가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달 수치가 하향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수치는 처음 보였던 만큼 큰 상승 충격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 오전 11시 직후 현재 S&P 500은 5,222, 나스닥은 16,447로 큰 변동이 없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 베이스 포인트 하락한 4.83%를 기록 중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WSJ: Sky-High Housing Costs Propel Construction of Rental Homes

치솟는 주택 비용이 '임대 주택 건설' 부추긴다

-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임대용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엄청난 주택 가격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임대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 주택 컨설팅 기업 John Burns Research and Consulting에 따르면, 2023년에 9만3천채의 신규 임대용 단독주택이 완공됐다. 이는 역대 어느 해보다도 많은 수치로, 2022년보다 39% 더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빠른 속도는 올해까지 유지되다가, 2025년에 이르러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JBRC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률은 팬데믹 정점인 두 자릿수 비율에서 둔화되었지만, 주택 임대료는 여전히 아파트보다 높은 추세이다. 다가구 건물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입주율도 임대 주택 부문에서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대 주택을 향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WSJ 기사

[물류]

Bloomberg: US East Coast Ports Are Spending Billions to Profit From Asia's Shifting Exports

미동부 항만, 서부 항만과 경쟁... 탈 중국 수출 추세 활용

- 조지아의 사바나와 브런즈윅이 투자 확대를 통해 서부 항만 물동량과 경쟁하기 시작하고 있다.
- 조지아 주정부는 사바나 강을 가로지르는 Eugene Talmadge 기념 브리지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억8천9백만달러를 투자해 서스펜션 케이블을 줄이고 데크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4번째로 미국에서 물동량이 많은 사바나 항구의 상류 부두까지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서부 항구들과 경쟁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이같은 배경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물동량이 중국에서 남아시아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인도, 스리랑카 같은 지역에서 대서양을 지나 동부 해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OPEC Sticks to Oil-Demand View, Posts Fall in Overall Output

OPEC, 석유 수요 전망 고수하면서 '전체 생산량 감소' 발표

- 석유수출기구(OPEC)는 올해와 내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원유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 비엔나에 위치한 해당 기구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석유 수요가 올해 하루 2백20만 배럴, 2025년에는 하루 1백8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추정치와 동일한 수치이다.
- 이번 보고서는 유가가 이달 초에 3월 중순 수준까지 하락한 후, 박스권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석유 공급이 가자지구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미국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세 심리를 이끌고 있다.

WSJ 기사

[미중 관계]

WSJ: Biden Levies Sweeping Tariffs on China, Intensifying Trade Fight With Trump**바이든 중국에 광범위한 관세 부과... 트럼프와 무역정책 경쟁**

- 미 대선 후보자들끼리 대중국 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1백%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 이후에 트럼프는 지난 주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차량을 지목하면서 “나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2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 바이든 행정부 측은 또한 현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율을 현행 7.5%에서 25%를 높이고, 태양광 전지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다 자세한 항목별 관세 내역은 아래 도표 참조.

WSJ 기사

Bloomberg: China Vows to Take Measure to Defend Rights as US Adds Tariffs**중국, 바이든 관세 정책에 ‘결연한 대응’ 맹세**

- 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국산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건전지, 핵심 광물에 대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체 대응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밝히지 않았다.
-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자체 권익과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은 즉각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바꾸고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 Business: McDonald's, Apple and Tesla can't bet on making a fortune in China anymore

맥도날드, 테슬라 등, 중국에서 돈 벌기 더욱 어려워진다

- 지난 수십 년간 서구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꾸준한 성장을 토대로 수입을 창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치열한 현지 경쟁으로 인해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수입 창출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 특히 전기차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업들이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다. 금요일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월에 4%로, 이 전 달인 3월의 7.7% 대비 거의 절반이 줄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상하이 공장의 지난달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 지난해 중국 경제는 5.2% 성장했다. 이는 천안문 사태에 따른 국제적 제재로 인해 3.9%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그쳤던 1990년 이후, 가장 느린 연간 성장률이다.
- 중국의 소비자들은 일자리 및 소득 전망이 악화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소비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Airlines Sue US Transportation Department Over Rules Requiring Fee Disclosures

주요 항공사들, 연방 교통부 고소 ... 수수료 공개 의무화에 반발

- 최근 미 교통부가 발표한 수수료 사전 공개 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업계 로비 단체가 미국 교통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부는 해당 규정을 통해 여행객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해당 소송은 금요일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에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젯블루 항공을 포함한 항공사들과 업계 무역 그룹인 Airlines for America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교통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규정 발표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달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 대리점은 위탁 수하물과 기내 수하물, 예약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추가 요금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당시 교통부는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피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Bloomberg 기사

WSJ: Walmart to Lay Off and Relocate Workers

월마트, 일자리 축소하고 재배치한다

- 월마트가 최근 수백 개의 기업 일자리를 축소하고, 대부분의 원격 근무자에게 사무실 출근을 요청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 또한 델러스, 애틀랜타, 토론토의 소규모 사무실 직원들은 아칸소 주 벤틀빌에 위치한 월마트 본사나 뉴저지 주 호보켄, 캘리포니아 북부 등의 다른 중심 근무지로 이동하도록 요청받았다.
- 이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월마트도 점차 원격 근무 유연성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로, 월마트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사무실의 수도 줄였다.

WSJ 기사

TechCrunch: OpenAI debuts GPT-4o 'omni' model now powering ChatGPT

OpenAI, GPT-4o '옴니' 모델 출시

- 월요일 OpenAI가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인 'GPT-4o'를 발표했다. 'o'는 텍스트, 음성, 동영상을 처리하는 모델의 능력을 나타내는 '옴니'의 약자로, 이 모델은 향후 몇 주 동안 개발자 및 소비자 대상 제품에 '반복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 OpenAI의 CTO Mira Murati는 "GPT-4o가 GPT-4 수준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양식과 미디어에 알맞도록 GPT-4의 기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에 OpenAI의 가장 최신 모델인 GPT-4 Turbo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합을 학습하여,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이미지의 내용을 텍스트로 설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월요일 발표된 GPT-4o는 GPT-4 Turbo에 음성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TechCrunch 기사

미국 1년 후 기대인플레 5개월만에 최고...4월 소비자물가 불안감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 2022년 7월 이후 최고...'2% 인플레 목표' 신뢰 약해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년 뒤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CNBC방송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설문조사 결과 1년 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지난달 3.26%(연율)를 기록, 전월(3.0%)보다 0.26%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 3.36%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